

## 국어 공부, 이렇게 안 하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 (1) ' 쌤...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 수가 없어요.'

수능 국어 영역 시험은

2017학년도 이후 텍스트 양이 많아짐으로 인해 학생들로 하여금 시간의 압박을 주는 시험이 되었습니다.

시간 압박은 텍스트 양뿐 아니라 텍스트 난이도로 인해 더욱 증가되었고,

2018학년도, 2019학년을 지나면서 독서 지문의 난이도는 갈수록 증가하였습니다.

물론 2024학년도 평가원과 수능에서는 이전 년도에 비해 독서 지문 난이도가 하락하였고, 텍스트 양도 줄었지만, 앞으로의 평가원 시험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기출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것에 두려움을 갖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2) 속도보다 정확도에 집중하자?

1-2월이 지나고, 3월입니다.

11월까지 3단계로 나눈다면 아직 우리는 1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속도보다는 정확도, 즉, 독해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기보다는,

시간을 무제한으로 하고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연습을 진행합니다.

실제로 학생들을 만나보면 처음 문제를 풀 때도 시간제한 없이 문제를 풀곤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독해력이 상승하고, 지문을 읽을 수 있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속도도 잡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이죠.

과연, 지금 이렇게 공부하면 몇 달 후에 우리는 새로운 텍스트를 보았을 때,

완벽하게 이해하고,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수능 독서 영역 시험에 필요한 독해력을 기를 수 있을까요?

이렇게만 하면 될까요?

이렇게만 공부를 하고 수능을 응시한 학생들 혹은 앞으로 모의고사를 응시할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1. 분명히 국어 공부를 하고는 있는데, 시험만 보면 점수가 그대로다. 들쭉날쭉하다.
2. 내 책상에서 고민함으로써 성장했다고 느꼈던 이해력이 실전에서 적용이 안 된다.
3. 시간이 여전히 부족하다.
4. 시험장에서 나와서 보면 틀릴 문제가 아닌데 시험장에서는 틀린다.

모의고사에서만 이렇고 수능에서는 잘 되면 다행이지만... 이러한 결과들이 수능에서 반복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은 당연히 없습니다.

오히려 수능에서 국어를 망한 학생들의 대부분의 후기는

'공부할 때와 다른 태도로 응시했다.'

'뭘 한 건지 모르겠다.'

'평소와 다르게 수능장에서의 국어 점수가 정말 많이 떨어졌다.'

혹시라도 이런 느낌을 받았던 N수생들이 이 생각만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직 내가 수능 국어에서 원하는 독해력까지 못 올라갔구나. 더 열심히 이해하고, 지문을 씹어먹어서 독해력을 키워야지!'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 (1) '정확도'의 정의

2018년, 국어 과외를 처음 시작했을 때,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수학, 과학탐구와 다르게 국어는 공부한 만큼 점수가 잘 오르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학과 생명과학을 예로 들자면 특정 단원의 유형들(killer 제외)을 열심히 공부하면 적어도 그 단원의 그 유형은 풀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어의 경우, 특정 유형이라는 게 모호합니다.

항상 다른 지문들이 출제되고, 다른 소재가 서술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지문들을 읽어도 당황하지 않게 글을 읽어내고, 낯선 소재에 흔들리지 않는 방법을 체화하고, 80분 간 지치지 않는 체력을 키워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국어 영역에서의 '정확도'의 정의입니다.

하지만 언급했듯이 속도와 정확도의 분리된 학습과 태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부를 시작하는 순간에서도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야 매달 진행되는 모의고사에서 현타감이 아니라 성취감을 얻고,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 (2) 속도와 정확도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처와 상관없이 국어 지문은 반드시 시험과 같은 느낌으로 풀어야 합니다.  
즉, 시간의 압박을 느끼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 이 과정이 생략된 채 처음부터 무한으로 고민하면서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문제의 정오를 파악한다면.. 뿌듯할 수도 있지만, 이는 가짜 배부름입니다. 여기서 오는 성취가 실전에서 똑같은 느낌으로 발휘되기 힘들다는 뜻이지요.
- 물론 시간제한은 본인의 최종 목표보다는 넉넉하게 잡으셔도 됩니다.

한 지문에 9분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12분 혹은 그 이상으로 잡고 푸셔도 됩니다.  
더불어 저는 이 단계에서는 타이머를 down으로 놓는 것보다는 up으로 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 <구체적인 방법>

#### 1-2등급 학생

개인적으로 최소 2지문을 묶어서 푸는 것을 추천합니다.

‘독서 2지문을 20분 제한으로 풀어야지!’ 혹은,

‘독서 1지문, 문학 1지문을 18분 제한으로 풀어야지!’

1-2등급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독해할 수 있는 체력이 있기에

한 지문 단위로 푸는 것보다는 위 방법을 추천합니다.

#### 3등급 이하 학생

무조건 한 지문 단위로 풀이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2. 채점을 하지 않은 상태로 지문과 문제를 분석합니다.

국어 점수가 상승하고, 국어의 기본적인 능력인 독해력, 문해력이 향상하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을 얼마나 충실히 하는가가 ‘국어 공부의 질’을 결정합니다.

힘든 과정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하셔야 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 내가 시간 압박을 받으면 이런 부분을 못 읽는구나.’  
‘급하게 읽다 보니 흐름을 아예 놓쳤구나.’  
‘부분에 몰두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큰 흐름을 놓쳤구나.’  
‘이 선지의 정오 판단을 왜 이렇게 했지? 간단한 거였는데.’  
‘왜 아까는 이 선지의 근거가 안 보였을까?’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지며 시간 압박 속에서의 본인의 사고를 성찰하셔야 합니다.

## <구체적인 방법> - 지문 분석

### 지문 분석 (1) 독서

8번의 수업동안 많이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요점만 말씀드리지요.

#### ▶ 지문을 관통하는 큰 맥락 잡기.

지문의 부분을 이해하기 전에 지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고, 지문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잡아야 합니다.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부분에 해당하는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능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문 전체의 흐름을 알아야 지문 독해 속도가 빨라지고, 문제 풀 당시에 지문으로 눈을 잘 돌릴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문 전체의 흐름이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문단 정리부터 하셔도 좋고, 제가 수업 시간에 칠판에 필기하는 것처럼 지문 전체의 구조를 그리셔도 좋습니다.

단, 무조건 손으로 쓰세요.

'쌤 저는 눈으로만 하는 게 편해요. 눈으로 해도 충분해요! 손은 힘들어요!'

이런 식의 이야기는 접어 두시죠.

손으로 해야 추후에 손이 없어도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득하지 않겠습니다.

#### ▶ 지문 내 문장 이해하기.

'이해'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는 지문 내에서 하는 것이지, 지문 밖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필자가 제시하지도 않은 물음표에 혼자 머무르지 마시고...

서로 다른 글자지만,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푹 푹 연결하면서 이해해보시지요.

### 지문 분석 (2) 문학

#### ▶ 작품과 익숙해지기.

문학은 잘 읽거나 못 읽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은 보통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는 것인가?

독서와 다르게 꽤나 간단합니다.

많이 읽으면 됩니다.

예습 과제로 드린 것, 혹은 추가과제로 드린 것을 자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태로 수업에 들어오시면 정말 큰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 읽지 않고... 강의에 오시면... 강의를 못 따라오실 겁니다.

### <구체적인 방법> - 문제 분석

사실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채점을 이 과정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 ▶ 나의 사고과정 교정하기.

처음 실전처럼 문제를 풀고, 다시 문제를 보다보면 정답이 바뀔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체크하세요.

예를 들어 5번 문제에서 ⑤를 골랐다가 ③으로 바꾸신다면 본인의 책에 '⑤ → ③' 이렇게 써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왜 문제의 답을 바꾸었는지 반드시 적은 분량으로라도 이유를 써두시기 바랍니다.

→ 이후에 채점을 하고, 해설지를 보거나 수업을 들으면서 본인이 잘한 사고와 못한 사고를 더 명확히  
골라낼 수 있겠지요?

#### ▶ 문제로부터 지문 이해하기.

평가원 문제는 정말 지문에서 중요한 것들만 물어봅니다.  
문제의 정오의 내용적 근거가 바뀔 수 있지만, 그 출제원리는 항상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업을 따라오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정답 선지가 지문에서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 찾는 것은 당연하고, 왜 그 부분이 정답 선지가 되는지 그  
원리까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수업 때 충분히 다루니 살짝만 고민하고 오셔도 됩니다.

### 3. 시간 압박이 없을 때 했던 사고 중 시간 압박이 있어도 해야 할 사고들이 무엇인지 선별하고, 일반화시켜야 합니다.

인간은 자기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죠.

저조차도 항상 계획은 가득하게 세워놓고, 막상 실행에 옮기는 것은 그중 일부분입니다...ㅎ

시간 압박이 없을 때 한 모든 사고를 실전에서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목표이지, 우리 자신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일단은 하한치부터 고민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아, 이거는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이 반복해서 문제가 뜨니 이 부분에 주의해서 선지 판단해야겠다.'*

이 과정에서 서로 다른 지문에서 공통점을 발견하고 일반화까지 하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출과 똑같은 지문과 똑같은 어휘가 출제되지는 않지만,

똑같은 문장 형태와 지문의 큰 흐름, 문제 출제 원리는 반드시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수험생 시절 직접 해본 공부법 중에 가장 좋은 공부법을 전부 담았습니다.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손으로 써야 할 것도 많고, 내가 한 사고를 돌아보며 검토하는 메타 인지적인 능력까지 요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하셔야 합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에 쉬운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꼭 많이 쓰고, 많이 고민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모호하다면 현강 수강생의 경우, 이전 수업 복습 영상을 참고하거나 오르비 클래스에 있는 '평문평답\_기출의 시작' 강의를 참고하세요!

응원합니다.

#### 추가하면 좋을 내용 - 독서

1. 학생들이 지문을 읽어 나갈 때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읽고 있는지, 앞으로 글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대로 글을 읽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지문 난이도가 어려워져 버리거나 조금만 생소한 주제가 나오면 글을 읽고 난 다음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글을 읽을 때 자신이 무엇을 읽고 있는지, 단락 별로 주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글을 읽는 연습을 합시다!
2. 여러분들은 수능 전까지 기출을 많이 학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기출 학습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출 학습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기출 학습이 독이 되지 않게 하려면 항상 내가 처음 풀 때 어땠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수능 시험까지 공부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독해 능력이 극적으로 늘지는 않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요, 하지만 기출을 많이 학습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내용을 보기도 하고 해설도 들으니 내용이 이해되어 수능 시험장에서 그정도 내용이해는 할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항상 이를 경계하시고 처음 기출을 풀 때를 생각하며 내가 수능 시험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바탕으로 지문을 어떻게 읽고 선지를 어떻게 판단할지 고민하는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